

편견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마주하다



⑥ 성별 고정관념 깨는 역량 읽기

고유한 존재로 바라보고 '역량' 자체에 주목
공정한 시선으로 서로의 가치·장점 발견하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매치에서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끈 것은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기만이 아니었다. 경기의 절대적 권력자인 주심 토리 펜소와 부심 브룩 메이오, 캐서린 네스빗으로 이루어진 전역 여성 심판진의 등장이었다. 거친 태클에 망설임 없이 옐로카드를 꺼내 들고, 결정적인 핸드볼 반칙에 단호하게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이들의 매끄러운 경기 운영에 미디어는 연일 '금녀의 벽이 깨졌다'며 찬사를 쏟아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이 뉴스를 펼쳐 들었다. “와, 월드컵 심판을 여자까 하니 진짜 멋져요!” 한 아이의 감탄에, 나는 화면을 넘겨 기사 이면의 또 다른 사실을 보여주었다. 과거 브라질의 한 여성 심판이 “성인잡지 화보나 찍으라”는 관중과 미디어의 성차별적 폭언을 견디다 못해 28세의 나이로 은퇴해야 했던 아픈 기록. 그리고 오늘날 FIFA 국제심판 3208명 중 여성이 역대 최대 969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통과해야 했던 남성 중심적 장벽의 역사였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월드컵 심판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유독 놀라워할까? 이들이 그라운드에서 서기 위해 증명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아이

들의 시선이 기사 속 인물들의 경력으로 향했다. “남성 심판과 똑같은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대요”, “최상위 프로리그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전문가들이예요” 아이들은 비로소 성별이라는 겉데기 너머에 숨겨진 ‘단단한 역량’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주류 뉴스는 흔히 소수자의 도전을 ‘이색적인 볼거리’나 ‘시혜적인 기회 제공’이라는 시선으로 다루며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곤 한다. 그러나 뉴스 슬로우 리딩의 본질은 미디어가 강조하는 ‘최초’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진 존재들의 주체적인 서사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들이 원한 것은 성별에 따른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오직 실력과 공정함으로만 평가받는 당연한 무대였음을 기사의 행간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

축구장 위에서의 평등은 우리 일상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성별의 선들을 되돌아보았다. “남학생이니까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해”, “여학생이니까 차분해야 해”라며 서로에게 채웠던 편견의 족쇄를 풀고, 서로를 오직 고유한 존재와 역량 자체로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라운드 위의 단호한 휘슬 소리가 우리 사회의 완고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다정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연재팀/미디어교육연구회 'ON'>

활동 1. 프레임 스캐너 (수식어 걸어내기)

기사 속에서 성별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단어를 찾아 밑줄표로 표시하고, 그 단어를 걸어낸 뒤, 역량의 단어만 다시 읽어보자.

① 기사 속 성별 부각 표현 찾기 (당첨권 걸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경기에서 금녀의 벽을 뚫은 전역 여성 심판진이 화제가 되었다. 이번 경기는 **이색** 배정이라는 수식어가 무생물 만큼, 여성 심판들의 매끄러운 운영이 빛났다. 펜들은 '이색의 선택'이 경기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었다며 놀라워했다. 여성 심판의 월드컵 주심은 **역사적인** 최초 기록이다.

② 성별 수식어를 걸어낸 뒤, 역량의 단어로 다시 읽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경기에서 국제 심판 3명이 **최상위** 통과, 이번 경기는 **체력** 테스트 통과, 최상위 리그 경력을 갖춘 심판들의 매끄러운 운영이 빛났다. 펜들은 '정확하고 **공정한** 판정'이 경기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었다며 감탄했다. 국제 심판의 월드컵 주심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 인물의 '성별'이 아닌 '역량'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판단하고, 경기를 안전하게 이끄는 전문가!

활동 2. 3인칭 시점 변환 (그라운드 밖에서)

여성 심판의 판정을 지켜본 '상대 팀 감독' 혹은 '동료 심판'의 시선이 되어 편견을 깨보자.

나는 **상대 팀 감독**의 입장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았다. 날짜: 2025. 7. 2

처음엔 솔직히 걱정했다. 월드컵 같은 큰 경기에서 여자가 주심을 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었다. 그런데 전반 15분, 우리 팀 선수의 거친 태클에 망설임 없이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순간 '와, 진짜 흔들림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반에 우리가 핸드볼 반칙을 했을 땐, 주심은 VAR을 보고 정확하게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그 순간 더 이상 성별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공정함과 규칙만이 있었다.

오늘 이 경기를 통해, 진짜 프로는 성별이 아니라 실력과 용기로 만들어진다. 정말 인정하게 되었다. 멋진 심판이었다.

활동 3. 일상의 밸런스 패치 (편견의 무게 중심 잡기)

우리 주변의 성별 고정관념을 찾아 '능력'과 '마음'으로 균형을 맞춰보자!

우리의 주변의 성별 고정관념 (무게가 한쪽으로 쏠림)	밸런스 패치! (능력과 마음으로 균형을 잡기)
1. 축구 심판은 남자의 일이다.	→ 축구 심판은 규칙을 잘 아는 사람의 일이다!
2. 무거운 짐은 남학생이 들어야 한다.	→ 함께 세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한다!
3. 여학생은 차분해야 한다.	→ 나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멋지다!
4. 간호사, 돌봄은 여자의 일이다.	→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두의 일이다!

★ 오늘 나는 성별 편견을 깨고, 어떤 균형을 만들어 냈을까?
성별 상관없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능력으로 인정해주기!

활동 4. 역량 카드 교환 (존중과 칭찬의 한마디)

친구의 성별이 아닌, 장점을 칭찬하는 카드를 써서 서로 교환해 보자!

친구에게 보내는 '역량 카드'

받는 사람: 하준이에게 날짜: 2025. 7. 2

하준아, 너는 발표할 때 자신감이 정말 멋져! 준비도 꼼꼼하게 하고,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해서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웠어. 앞으로도 너의 멋진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응원할게! 😊

친구에게 보내는 '성별 카드'

받는 사람: 소희에게 날짜: 2025. 7. 2

소희야, 너는 친구들이 힘들 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이 너무 멋져! 그걸로 칭찬하니까 공부하고, 아이디어도 반짝반짝 빛나. 너의 상상력과 배려심은 최고의 능력이야! 언제나 네 편이야! 화이팅!

★ 오늘 수업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은 성별도 나누는 게 아니라, 실력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수업 계획하기

- ▶ 수업 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자
- ▶ 수업 주제: 그라운드 밖의 유리천장을 깨뜨린 날카로운 휘슬(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소수자의 역량 읽기)
- ▶ 활용 자료: 월드컵 여성 심판진 활약 기사 및 과거 성차별 인터뷰 기록, '편견의 무게 중심' 활동지
- ▶ 수업 성취 기준
 - 뉴스가 소수자를 다루는 프레임(성별 주목)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존재를 오직 '실력과 역량'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기른다.
- ▶ 활동 단계
 - ▷ 도입: 텍스트의 온도 차이 읽기
 - 월드컵 여성 심판의 '매끄러운 판정 뉴스'와 과거 여성 심판이 겪었던 '조

- 통의 역사'를 대조하여 읽기
- 핵심 질문: “왜 사람들은 심판의 판정 실력보다 '성별'을 먼저 이야기할까? 기사 속 심판들이 장벽을 넘기 위해 흘린 땀방울은 무엇일까?”
- ▷ 전개: 관점 전환 활동
 - [활동 1] 수식어 걸어내기
 - 기사 속에서 '금녀의 벽', '이색 배경'처럼 성별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단어들 찾기
 - 인물의 성별을 지우고, '국제 심판', '체력 테스트 통과', '최상위 리그 경력'이라는 역량의 단어로 기사를 다시 읽으며 인물의 진짜 가치 발견하기
 - [활동 2] 3인칭 시점 변환
 - 경기장에서 여성 심판의 칼날 같은 판정을 정면으로 마주한 '상대팀 감

- 독'이나 '동료 심판'의 시선이 되어 경기 판정평을 작성하기
- 성별에 대한 의구심이 단호한 규칙 집행 앞에서 어떻게 존중과 실력에 대한 인정으로 바뀌는지 문장으로 표현해보기
- ▷ 정리: 편견의 무게 중심 잡기
 - [활동 3·4] 일상의 밸런스, 역량 카드 만들기
 - “축구 심판은 남자의 일”, “돌봄은 여자의 일”처럼 우리 동네와 학교에 깔린 성별 분업의 선들을 찾기
 - ‘직업과 역할 앞에는 (오직) 능력과 마음이 존재한다’는 규칙을 세우고, 교실 내에서 성별 편견 없이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는 '역량 카드'를 교환하며 마무리

제주↔일본전세기 3월

특별한 가을 여행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사전예약 할인 (현달간~7.15일까지)
1,099,000 → 999,000

※ 양국정부 인허가조건 ※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황산 1,199,000원
오진 1,199,000원
상해 1,099,000원

광복절연휴 항주, 상해 4월
8.14(금)-17(월,대체휴일) **1,099,000원**

오사카 4월 1,520,000~

후쿠오카 4월 1,550,000~

타이베이 4월 1,190,000~

카오슝 4월 1,210,000~

싱가폴 5월 1,440,000~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제주시 진남로 32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공항세, TAX, 유류할증료 포함), 호텔(2인1실), 차량료, 입장료, 식사, 가이드, 여행자보험 등
불포함 사항: 부가서비스(10%), 봉사료, 선택관광 |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